

담당_홍선화

2004년 제 3차 중앙회 회장단 회의 개최 2004 진행 사업 및 협회 회관건립 기금 현황 보고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0월 6일 본 회관 협회장실에서 2004년 세 번째 회장단 회의를 갖고 협회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부회장, 유현식 부회장, 박찬희·유현식·김흥연·조상호 부회장(대리 서남석 상무)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이후 협회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회관건립기금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먼저 진행된 하반기 사업 계획과 관련해 주요 진행 사항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시범 종목 계획 수립안, 제 38회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선발, 해외 기술인 초청 제빵 세미나, 올해 첫 테이프를 끊는 전국여성제과기술인경연대회, 국제 크로강부슈페스티벌, 회장단 일본 양과자협회 초청 공식방문, 일본과자전문학교 기술연수단 파견,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 올해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간 월간 <베이커리> 온라인 콘텐츠 사업과 시흥, 용인, 일산, 광명 등 지회·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지회·지부 창립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월간 <베이커리>는 내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를 유료화 시켜 독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제과정보를 전하게 된다.

회장단은 올해 안에 지회·지부 미결성 지역 가운데 4개 지부 설립을 결의하고, 지난 7월 28일과 10월 4일에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주시지부와 시흥시지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용인과 광명 지역에 각각 지부 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심한 불황의 늪에 빠진 제과업계의 활로 모색을 위한 프랜차이즈업과 원도우베이커리 공생방안에 대해서 열린 논의를 펼친 끝에 과당경쟁과 할인경쟁을 지양하고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고객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와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선의의 경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회관건립기금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기금 액수와 전달 방식을 놓고 협회와 마찰을 빚어온 파리크라상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Prizm

2004년 하반기 기술분과위원·기술지도위원 회의 개최 각종 대회 및 세미나 계획 발표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0월 6일 본 회관 회의실에서 2004년 하반기 기술분과위원·지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분과위원, 기술지도위원들에게 2004년 하반기 사업 계획 및 각종 대회 개최요강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04 월드페이스트리팀 챔피언십'에 참가해 설탕공예 부문 1위와 종합 5위를 차지해 좋은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팀 정영택, 정찬웅, 김영훈 씨에게 대회 참가증서를 전달했다. (작은 사진)

맨 먼저 올해 전주에서 열린 제39회전국기능대회에 시연종목으로 처음 참가해 대성황을 이룬데 이어 오는 2005년 대전에서 개최하는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제과제빵 직종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협회는 대회 규정과 품목을 제정하는 전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명단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행홍 한국제과학교장을 위원장으로 박찬희 기술분과위원장, 각지원 기술분과부위원장,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오병호 기술지도위원, 간사를 맡은 정일석 사무총장 등 6명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밖에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38회 국제기능올림픽선수대회 참가 선수 선발 기준 및 심사방법을 소개하고, 2004년 여성기술인경기대회를 비롯해 2005 월드페이스트리컵대회, 유로팬전시회(국제 크로강부슈 페스티벌) 등 앞으로 열릴 각종 대회 개최 요강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앞으로 보완해 나갈 점을 집중 토의했다. 일부 지회장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참가인원이 저조했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회가 아닌 지부에서 열의를 갖고 세미나 요청을 하면 개최하는 한편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세미나 시간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 참석인원

날짜	지역	참석인원	날짜	지역	참석인원
8월 31일	인천광역시지회	70명	9월 7일	대구·경북지회	95명
9월 8일	제주도지회	121명	9월 9일	서울 강남	84명
9월 10일	서울 강북	122명	9월 11일	경상남도지회	29명
9월 14일	충청남도지회	41명	9월 15일	부산광역시지회	80명
9월 15일	충청북도지회	44명	9월 15일	경기도지회	72명
9월 16일	대전광역시지회	102명	9월 16일	광주·전남지회	56명
9월 17일	전라북도지회	38명	9월 17일	울산광역시지회	50명
계	14개				1004명

2005 월드페이스트리컵 연수단 모집

월드페이스트리컵 대회 및 세미나 참관



(사)대한제과협회는 2005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들 동안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는 '2005 월드페이스트리컵' 대회 참관 연수단을 모집한다. 이 대회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기술

경연 대회로 전세계 18개 국에서 선별된 프로 제과기술인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한국은 설탕공예 홍중흔 씨, 초콜릿 공예 최인호 씨, 아이스카빙 조성훈 씨 등이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대회에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대회 참관과 함께 프랑스 파리와 리옹의 유명 제과점을 방문하고, 프랑스의 유명 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비용은 270만 원. 신청 및 문의는 이경미 대리·김창민(02-2055-3348).

2005 모박쇼 연수단 모집

모박쇼 참관 및 오사카 고베 지역 유명 제과점 견학

(사)대한제과협회는 2005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오사카에서 열리는 모박쇼에 참가할 연수단을 모집한다. 모박쇼는 2년에 한번씩 동경과 오사카를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제과관련 기계 및 업체 마케팅 관련 전시회로 점포 운영과 기술 발전, 매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위 있는 행사로 꼽힌다.

이번 연수는 모박쇼 참관을 비롯해 좀처럼 방문하기 어려운 오사카와 고베의 지역 유명 제과점과 일본 식기문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난바도구상가, 포장상가 등의 견학 등을 통해 일본 현장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박쇼 연수단 참가 비용은 105만 원. 신청 및 문의는 (사)대한제과협회 이경미 대리·김창민 (02-2055-3348).

Prizm

회장단, 일본양과자협회연합회 공식 방문

2004 재팬 케이크쇼·동경 전시회 준비 및 전야제, 개막식 참석

ジャパンケーキショー東京2004前夜祭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양과자협회연합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대한제과협회와 일본양과자협회연합회가 친선교류를 맺으면서 격년으로 회장단이 상호 방문하기로 한 협정 체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식 초청을 받은 협회 회장단은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김흥연·박찬희·유현식·임영진 부회장, 김종익 기술고문, 정일석 사무총장, 김창민 씨 등 총 8명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최대 베이커리 축제인 2004 재팬 케이크쇼·동경 전시회 전야제 및 개막식에 참석했다.

회장단은 일본에 도착한 첫날인 11일 일본양과자협회연합회 다카하시 회장을 비롯해 일본 일본 협회 임원들과 함께 2004 재팬 케이크쇼·동경 개막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둘러본 다음 전야제에 참석해 대한협회 회장단과 일본 각 도의 회장 등 내외빈과 만찬을 하며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2004 재팬 케이크쇼·동경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마친 뒤 전시장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 과자공방 오후우드를 비롯해 일본 유명 제과점을 견학했다. 셋째 날에는 데이지, 불량제리 K 오키오마 등 일본 유명 제과점과 니혼바시 미츠코시 백화점에 입점한 제과점을 둘러보며 일본 제과 기술 및 인테리어, 포장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 동크 쉐프 '야자와 나까바' 초청 실용빵 세미나

조리빵, 브리오슈, 프랑스빵, 데니쉬 등 실연

지난 10월 8일 (사)대한제과협회가 주최하고 월간 <베이커리>가 주관하는 외국인 쉐프 초청 실용빵 유료 세미나가 한국제과학교에서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해마다 외국 유명 쉐프를 초청해 실시하는 정기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본 최고의 빵 전문점 (주)동크의 새로운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불량제리 조안'의 야자와 나까바 치프 쉐프의 실연으로 조리빵 8~10종류, 브리오슈 3종류, 프랑스빵 3종류, 데니쉬 등 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실용빵 위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객지원 (사)대한제과협회 기술분과부위원장이 통역을 맡아 수고했고, 신현수·최문성 기술지도위원 등이 세미나 진행을 도왔다.

Local News News

담당_홍선화

서울시협의회

수락산 등반하며 화합의 장 마련



서울시협의회(회장 윤충기)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수락산으로 등산을 다녀왔다. 가을 산행을 하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은 윤충기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지회장들은 수락산 정상

에 올라 아름답게 펼쳐진 단풍을 바라보며 경기 침체에 따른 시름을 잠시 잊고 지회장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시는 시간을 마련했다.

동일한 등산조끼를 갖춰 입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지회장들은 산행을 마치고 경기 불황을 타개할 논의를 하며 서울시협의회 발전에 모색했다.

이날 등반에 중앙회 김영모 회장 대리인으로 참석한 정일석 사무총장은 서울시 지회장들과 각 지회의 어려운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과업계의 발전을 모색했다.

전라북도지회 · 전주시지부

이사회 거쳐 이관용 지회장 겸 지부장 선출



전라북도지회는 지난 9월 17일 강대운 지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회장 선출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회장으로 풍년제과 이관용(사진) 대표를 선출했다. 이관용 지회장은 강현희 지부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전주시지부장도 함께 겸임한다.

한편 기술위원장은 이관복 기능장을 선출해 앞으로 전라북도 제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Prizm

시흥시지부 창립 총회

경기도 12번째 지부로 힘찬 발돋움



지난 10월 4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사회 복지관에서 시흥시지부(지부장 김상국)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8월 14일 시흥시지부 창립을 위한 첫 모임이 발주된 지 2달 만에 이와 같은 경사를 맞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김성환 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 등 중앙회 임원을 비롯해 시흥시청, 한국음식업중앙회, 재료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특히 조계종 경기도지회장과 함께 경기도 지역 11개 지부장과 사무장들이 대거 참석해 12번째 지부의 탄생을 축하했다.



1부 순서에서는 시흥시지부의 초대 지부장으로 김상국(빵과사람들) 씨가 선출됐다. 김영모 회장이 김상국 지부장에게 지부 인준서를 수여하며 시작된 2부에서는 지부 임원과 도움을 준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격려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마무리였다.

김상국 지부장(작은 사진)은 인사말에서 "지부 창립을 위해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며 "늦게 시작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고 지부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영모 회장은 격려사에서 "모든 회원들이 협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시흥시지부의 창립을 축하했다.

시흥시지부는 지난 8월 13일 지부 창립을 위한 첫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9월 들어 그 결실을 맺어 시흥시청 위생과에 지부 창립 통보를 하는 한편 사무실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10월 4일 많은 제과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부 창립이라는 큰일을 해냈다. 현재 시흥시지부의 회원수는 62개 업소.

이날 총회에서는 김상국 지부장 선출과 함께 고성을(테마) 씨, 최승재(르비앙베이커리) 씨, 최기호(최기호베이커리) 씨 등 부지부장 3명과 총무 1명, 자문위원 4명, 고문 1명, 감사 2명, 이사 11명이 앞으로 시흥시지부를 이끌 위원단으로 구성됐다.

한편 10월 12일에는 지부 사무실 헌판식을 가졌다.

강남 · 서초지회, 논산시지부

지체 장애인들에게 이웃 사랑 실천

강남 · 서초지회(지회장 홍종식)와 논산시지부(지부장 구민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각각 '라파엘의 집' 과 '작은자의 집' 을 방문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강남 · 서초지회는 지난 9월 23일 추석을 맞아 시각장애와 함께 정신지체, 발달장애, 지체장애, 청각, 언어장애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복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여주의 '라파엘의 집' 을 찾아가 빵 1천200개와 중앙회에서 마련한 금일봉을 양지원 사무국장과 강남구청 위생과 고대원 계장 · 유두현 주임을 통해 전달했다(위 사진).

논산시지부는 논산시 은진면에 위치한 '작은자의 집' 을 10년 넘게 단 한달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임원과 회원들이 매달 이곳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전달한다. 지난 여름에는 시원한 팔빙수 봉사료 찜통더위를 이겨내는데 한몫했다(아래 사진). 또 매달 논산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간식을 봉사한다.



강서지회 · 광주광역시지회 · 안산시지부

가을 단합대회 개최, 화합의 장 마련



강서지회(지회장 박성호)와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이기남), 안산시지부(지회장 홍순찬)는 가을맞이 단합대회를 개최해 친목을 도모하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강서지회(맨 윗 사진)는 지난 10월 13일 강서구민회관 우장산운동장에서 박성호 지회장을 비롯해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족구, 이어달리기 등을 하며 서로 화합을 다졌다.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이기남)는 10월 17일 임원 및 회원들과 유관업체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연초제조창 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체육대회에는 이기남 지회장을 비롯해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 등 250명이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부별로 팀을 나눠 1팀 동구·화순군, 2팀 서구·남구, 3팀 북구, 4팀 광산구 등 모두 4개 팀으로 축구, 배구, 이어달리기, 기마전 등에서 숨을 실력을 겨루었고, 오랜만에 가족들

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어린이들을 위해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줄넘기, 닭싸움, 훌라후프 돌리기 등의 경기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또 청, 백팀으로 나눠 펼쳐진 축구경기는 뜨거운 응원전을 연출했다.

이날 모든 경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광산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안산시지부(맨 아래 사진)는 지난 9월 19일 처음으로 경기도 안산시 부곡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축구, 피구, 어린이달리기, 장애물경기, OX 퀴즈게임 등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의정부시지부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 개최



의정부시지부(지부장 남기찬)는 지난 9월 16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의정부시를 비롯해 동두천시, 양주, 포천시, 연천군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자 180명을 대상으로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을 주제로 의정부시 환경위생과 윤석규 과장, 서울산업대 배재근 교수, (사)대한제과협회 김성환 부회장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울산광역시 동구지부

제1회 북구민 건강한마당 '건강빵' 전시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에서 열린 '제1회 북구민 건강한마당'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지부(지부장 김병걸) 회원 김용주(뉴고려당 베이커리 대표) 씨가 건강빵과 영양빵을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양빵을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북구보건소의 초청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김용주 씨는 두부를 이용한 갖가지 건강빵과 영양빵을 만들어 전시하는 한편 시식 코너를 마련해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충주시지부

지부 사무실 이전 및 전화번호 변경

충주시지부(지부장 배재권)는 지난 10월 20일 지부 사무실을 이전했다. 충주시지부가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는 목행우체국 맞은편 목행헬스 옆 건물. 이전 주소는 충주시 목행동 608-21 2층. 전화번호는 (043) 854-9605

제주도지회

2004 제주국제음식문화축제 참여

제주도지회(지회장 박광만)는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 신산공원 및 민속관광타운에서 열린 2004 제주국제음식문화축제에서 베이커리 부문 전시회를 갖고 갖가지 빵과 과자, 공예작품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도(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손정균)가 공동 주최한 2004 제주국제음식문화축제는 세계 각국의 향토요리를 맛볼 수 있는 행사로 조리 관련 학과를 개설한 고교와 대학, 특급호텔 조리팀, 조리사회 및 제과협회 회원, 외식사업체 및 식품관련 유통업체, 도내 거주 외국인 등 모두 37개 팀 126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 행사에 하루 20작품 씩 총 55작품을 선보인 제주도지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베이커리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